

먹고 마신 것들 이야기로 소소하게 글을 써보려고 한다.

<https://youtu.be/n40xUNnBE7E>

47년 전통 레전드 보쌈과 함께 복순도가 막걸리 땡겨봤습니다.



올해(2022년) 5월 28일에 원할머니보쌈족발에 복순도가 손막걸리 조합으로 저녁을 먹었는데, 최근 유튜브 채널인 애주가TV참PD에 같은 조합으로 먹는 광고 영상이 올라왔다. 같이 먹었던 친구가 카톡으로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확실히 여기 보쌈과 막걸리 조합이 괜찮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은 김치가 달고 가격이 비싼 것만 빼면 깔끔하게 먹기 좋은 맛있는 보쌈 프랜차이즈다. 여기 족발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을지로미팅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19

[예약](#)

이번 달 7일 지난 학기 같은 수업 들었던 분께서 함께 프로젝트 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이야기 들을 겸 같이 식사를 했다.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웨이팅 없이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다. 구름파스타와 화이트라구 김치리조또 주문했는데 둘 다 추천한다. 리조또의 치즈와 파스타의 닭고기가 맛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달 20일에는 파스타스타 용산점에서 1인 미니스타 세트 시켜 먹었다. 선택한 건 매콤소갈비크림파스타랑 스테이크 미니컵밥. 꽤나 오래간만에 배달음식 시켜 먹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주문하고 한 달도 안 지나있었다. 마치 정말 오랜만에 롤 한 것 같아서 전적 확인해 보니 마지막 게임이 한 달 지나지 않은 그런 느낌. 보통 파스타는 해먹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시켜 먹기를 꺼리는 편인데, 이날따라 먹고 싶었다. 가격은 2만 원이 넘으니(20,400원) 살짝 비싼 감이 있는데 먹어보니 확실히 비싼 값을 했다! 맛있어서 순식간에 해치웠다.



키친마이아르 다녀온 다음 날 블로그에 [리뷰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본 후배가 글에 적힌 대로 따라서 기네스 드래프트를 마셨더니 맛이 좋았다고 알려주었다. 나도 직접 따라 해본 적은 없었기에, 얼마나 맛있나 궁금해서 바로 인근 편의점에서 기네스 드래프트 네 캔을 사 왔다. 리뷰 글에 적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네스 드래프트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5, 45, 80, 119.5 이 네 가지 숫자만 기억하면 된다.

5: 기네스 드래프트 캔을 따고 5초간 기다린다.

45: 맥주를 담을 마른 전용잔을 45도 각도로 기울인다.

80: 맥주를 일정한 속도로 잔에 붓다가 맥주 표면이 컵 주둥이에서 약 80퍼센트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때부터 잔을 세워 마저 붓는다.

119.5: 거품과 맥주가 분리되도록 약 119.5초간 기다린 후 마신다.

키친마이아르에서 받은 전용잔은 조금 작아서 440ml 기네스 드래프트를 전부 담을 수 없었다. 캔을 따자마자 마신 맥주와 위 과정을 거친 맥주의 맛을 비교해 보니 확실히 캔을 따자마자 마실 때 특유의 쓴맛이 좀 더 도드라졌다. 매장

에서 마실 때의 감동을 재현하지는 못했고, 조금 더 낫다는 정도의 맛 차이를 느꼈다. 키친마이아르를 함께 갔던 형에게 받은 과자를 안주 삼아 마셨는데, 상당히 독특한 맛이였다. 진짜 익혀서 소금 친 계란 맛 감자칩...



송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35-4

이번 달 21일에는 같은 달 15일 손흥민 선수가 다녀갔다는 송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 밀반찬도 맛있고 정갈하게 먹기 좋았다. 다만 내 입맛에 불고기는 좀 달았다. 원래 불고기가 좀 단 음식이긴 하다. 밥을 먹으며 7일에 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더 진행했다. 함께 이야기 나눈 두 분 다 나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다. 신나지 말고 정말 많이 부족한 만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곤트란쉐리에 강남역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

이번 달 22일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대학 동기와 함께 식사도 하고 빵과 음료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신나서 진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재미있게 들어주고 맞받아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

진의 빵은 소금버터빵과 카야버터빵인데, 카페 노트드 청담 갔을 때 먹지 못한 카야버터도넛의 한을 여기서 풀었다. 맛이 좀 독특했는데, 동기 말로는 자신이 아는 것과 맛이 조금 다르다고 했다. 나중에 관촬은 카야 잼을 따로 사서 먹어봐야겠다. 그래도 맛은 좋았다! 김치말이 국수와 막국수, 묵국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생각한다.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원한 면 요리들... 이 세 음식은 조만간 꼭 먹어야겠다.

누군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분산된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정제된 표현으로 정리하여 말하다 보니 그런 듯하다. 향후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선택지들을 눈앞에 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혼자서도 타인과 이야기할 때처럼 생각을 잘 정리하고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글로나마 다짐해 본다.